

# 죽음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다

Making the DEAD ALIVE by John W. Schoengit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면에서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몸이 죽고 그의 혼과 영도 역시 죽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든지 어데든지, 아무런 형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영혼이 없이 살수 없으며 영혼이 몸이 없이 살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모든것이 조화되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 하실 때 모든 부분이 각자 제멋대로 활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되어서 역할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거진다 몸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43절 (KJV-킹제임스 번역)에서는 "...fear came upon every soul... - 영혼마다 두려워 하는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뜻은 "...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가 주님이 오셔서 죽은자들을 살리실 때 까지 죽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사에 목적은 죽은 사람은 모든면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확실한 구절들을 모조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혹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화제꺼리에 어려운 구절들을 모조리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가 쓴 책, *Is There Death After Life? - 죽은후에 삶이 있는가?*에 모조리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이 책은 아직 한글 번역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이 책을 [Stfonline.org/store](http://Stfonline.org/store) 로 방문하셔서 주문하세요). 그대신, 이 기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시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되는가 하는 믿음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이 혼동 되었는가를 깨달을수 있는 것들에 집중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혼동으로 인하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가 나누어진 것들을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서 고문을 받거나 혹은 행복한곳에서 사는 것으로 단언하고, 한편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완전히 삶의 끝이고,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것을 단정했습니다.

##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않는 영혼"의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절 때 죽음에 대한 혼동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사람 (헬라인-Greeg) 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 종교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 이 "죽지않는 영혼"의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 그리스 사람들(헬라인-Greeg)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리스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를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믿음이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 동감하는 것이 꽤 많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서는 매우 다르게 차이나는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짐승, 그리고 하물며 식물까지도 죽지않는 영혼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잠깐 그리스인들이 믿는 죽지않는 영혼에 대하여 우선 네가지만 살펴서, 어느정도 이점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수 있도록 조사해 봅시다.

1. 어떤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Hades - 헤이디", 지옥, 곧 지하에있는 나라에서 얼마 기간에 정화(깨끗이)하고, 그 다음에 새 몸으로 들어가는데, 이 순환기가 긴 세월을 두고 그 사람이 완전한 덕인이 될 때까지 되풀이한 다음, 결국 환생 기간이 끝나면 영혼이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곳들을 어떤때는 Isles-신성한 작은섬들로 혹은 Elysian Fields-엘리시온 (죽은후에 사는 낙원) 별관들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지옥이 고문당하는 곳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죽은사람들의 죽지않는 영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 어떤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hades-지옥에 들어가서 판단받기를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죄가 중하면 형벌을 받는데, 영혼이 영원히 사는것과 같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빌린 것이 자연히 발전해서 전통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환생한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받은 영혼은 hades-지옥, 지하에있는 나라 Shades-셰이드스 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 다니다가, 혹 다시 다른 사람으로 돌아올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3. 어떤사람들은 만약에 죽은사람을 잘대접하지 않고 제대로 장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지상에서 방황하는데, 원한 맺힌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원썩이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4. 어떤사람들은 Homer-호머라는 분이 쓴 책에서, 특히 아주나쁜 사람의 영혼은 Hades-지옥 속에서 형벌로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단순히 어두컴컴한 지하에 있는 나라에서 우울한 운명으로 영원히 방황한다고 내놓은 것을 믿습니다.

## Hades-지옥이 무엇인가?

그리스 신화학에 따르는 Hades-지옥은 지하의 신 인데, 종합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주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 Hades-지옥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지하 세상을 의미하게 된 것이므로, Hades-지옥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기사들이 지하 세상, Hades-지옥에 대하여 썼지만, 그 쓴 것들의 대부분이 교훈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 기사들이 쓴것은, 이야기 들로, 신들의 전설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가본 영웅들에 대한 것이며, 또 거기엔 Hades-지옥이 어떻게 생겼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서 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Hades-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죽지않고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영혼은 죽지않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학에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 형체는 몸을 떠나서 항상 살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탄생 332년 전에 Alexamder-알렉산더 이란 대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약 150년이 넘는 후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를 거쳐서, 그리스 사상과 종교 분위기가 유대인 문화에 깊숙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250년 전 경에는 유대인 거진다 히브리말을 하지않고 그리스말을 하게 되었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했으며, 그 번역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Septuagint-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번역 구약성서 라고 부릅니다. 이 Septuagint-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번역 구약성서 안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들어 유대인들의 문화에다가 그리스인들의 문화를 더욱더 깊이 차지 하게 했습

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 대목에 대한 문화가 특히 더 그리스사람들의 문화 환경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죽음이 모든 면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느면을 말하든지 간에 죽어있고 아무런 형으로 도 살아있지 않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가지 문제는 구약성서에서 가르치는 마지막때에 죽은 사람을 부활 시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사두개인들의 쓸쓸하고 우울한 믿음의 시스템-계몽으로 인하여 장래에 기쁨과 소망은 없었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옳게 알고 있었었습니다-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형상이든지 살아 있지 않습니다.

Alice Turner-알리스 터널 여사분이 쓴책, The History of Hell-지옥의

역사: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성서에 있는 증거로 판단 하는 데, 그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중에서 되도록이면 병적으로 과민하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상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웃과는 다르게,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들을 숭배하지도 않고, 희생도 하지않고, 죽은후에 다시 그들을 만난다는 소망도 없으며, 죽은후에 그들의 Yahwey-여호와 와 함께 교제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터널이라는 여자분의 관찰이 맞습니다. 구약에서 죽은자들이 죽어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할 필요도 없고 혹은 희생드릴 필요도 없고,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죽은후에” 다시 만난다는 희망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지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마귀들이 죽은 사람들 모양으로 둔갑하여 해칠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11).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이 무척 다르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만약에 한여자에게 일곱 남편이 있었다면 부활때는 그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한 이유는 부활의 믿음을 험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여자와 그녀의 죽은 남편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 있다는 설명은 하나도 하시지 않고, 그대신 “부활때는 결혼이 없다”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23-32).

## Sheol-새오가 무엇인가?

히브리어 본문 구약성서에는 사람이 죽으면 “Sheol-새오”로 간다고 말해 줍니다. Sheol-새오는 “무덤”등등이 아니고, 죽은 몸을 누워 놓는 장소 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덤을 *geber*-큐벌이라고 합니다. Sheol-새오는 “죽음” (히브리어로: muth-뮤트)과 같은 것 도 아닌데, 이 뜻은 삶의 결석을 의미 합니다. Sheol-새오라는 말은 그리스어나 영어에 이와 동등한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이 아닌데, 그러나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gravedom”(죽음이 통치한곳)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한글로는 이 단어가 없으며, 혹은 “그” 무덤대 “하나의” 무덤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나 혹은 죽음의 통치에 대한 것에 특별한 단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지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나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나 한글로 “요한이 죽었다,” 하면

그것이 사실인데, 또 요한이 앞으로는 다시 있지 않는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는 요한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요한이 죽었을 때 그의 존재도 없어져 끝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Sheol-세오에 있으면 그가 죽었고 아무면으로나 살아있지 않지만, “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킬수 있는 것입니다.

E.W. Bullinger (볼링얼) 학사께서 Sheol-세오에 대하여 쓰글:

성서 생도들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하는것 못지않게 또한 비유 로도 받아 드리는 것을 발견하는데, 히브리어 Sheol-세오라는 단어가 이 모든 의미를 다 갖추어 줍니다: Sheol-세오라는 뜻이 원래 있는 말과같이 특별하게 부르는 그 무덤이 아닙니다. 성경구절은 Sheol-세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할수 있는 모든 충분한 자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윗 기록에 출현한 단어 Sheol-세오에게 물어보면, 그 단어 자체가 가르쳐 주는데 (가) 안내로써는, 이것이 아래입니다. (나) 그 장소로써는, 이것이 땅속입니다. (다) 기점으로써는,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는의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말은 영어와 한글에 없지만, 죽음의 기간... Sheol-세오 이 뜻이 죽음의 상태; 혹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무덤은 추적할수 있는 증거입니다. 무덤은 단지 죽음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때는 personified-사람으로 비유해서 죽음이 말하는 것 같이 하는데 생명없는 물체들을 비유삼아 하는 것 같이 합니다. 동전 하면 그 말 자체가 그것을 표현하듯이, 무덤, 이 뜻은 죽음의 통치 혹은 무덤의 세력을 표현 합니다. (라) 관제되는 점은, 이것은 살고 있는 상태와 대조적입니다 (신명기 30:15절과 19절; 사무엘상 2:6-8). 이것이 대조적인 것 외에, 한번도 살고 있는것과는 연결된적이 없습니다. ...(마) 그리고 종말로, 기간에 대하여서는, Sheol-세오나 혹은 무덤은 어느 때 까지 계속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끝은, 부활 곧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며, 오직 이것이 우리가 무덤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호세아 13:14절 등등을 읽어 보고 시편 16:10절을 사도행전 2:27절과 31절, 13:35절을 견해서 비교해 보세요)ᄃ

사람이 죽어서 Sheol-세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그친다는 것이 성서에 확실합니다:

**Ecclesiastes 9:10 (ESV-English Stander Version)**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it with your might, for there is no work or thought or knowledge of wisdom in Sheol, to which you are going.

한글 성경 (ESV)가 없음. 그러나 한글 성경에 이구절은 참 잘 번역했음:

**전도서 9:10**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 (Sheol-세오,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Sheol-세오에는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기뻐할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이 단

지 시체만 Sheol-생오에 들어간 것 처럼, 시체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함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도 아니다 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그사람 전체의 영혼까지 함쳐서, 그가 죽으면 Sheol-생오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Psalm 89:48 (ESV)**

What man can live and never see death? Who can deliver his soul from the power of Sheol? Slah

**시편 89:48 (ESV번역 없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 (Sheol-생오)의 권세에서 건지 리이까?(셀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 너무도 고생스러운 일이 많다면 어떤때는 그저 이 생활이 속히 끝나서, 죽음의 잠으로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워서 들림받기를 원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욕이 원한 것이 이와 다른점이 없습니다. 그자 에게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부활할 때 까지 죽어서 쉬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욥 14:10-14**

- (10)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즉(laidlow-낮은곳에 누었으니) 그 기운이 끈어 진즉 그가 어데 있느뇨
- (11)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 (12) 사람이 누었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 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 (13) 주는 나를 음부(Sheol-생오)에 감추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 (14)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renewal to come-새로운 것이 오기를) 기다렸(졌 이 본문에는 없음)나 이다

윗 구절들에 엄청난 사실들이 담겨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속에서 자고 있는 것이 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이 너무 고통스러우므로 쉼을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고, Sheol-생오에 숨겨져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욕은 킁킁하고 우울한 곳에서,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곳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만약에 욕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이던지 혹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믿었을 것 같 으면, 그가 죽으면 죽음속에서 잔다고 하지 않했을 것이며 새로운 것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했을 것입니다. Sheol-생오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죽음 안에서 자고 있으며,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세에서 욕이 그의 고통에서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욕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행복한 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말한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 죽음을 삶으로 만들었다

구약성경 신학과 유대인들 생각에 죽음의 상태가 몹씨 혼동된 것이 *Septuagint-그리스어*로 번역된 가장 오래된 성서가 소개된 후며, 그 그리스어 구약성서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된 것인데, 혼동된 이유는 히브리어로 "Sheol-생오"를 그리스어로 "Hades-음부(무덤)"이라고 번역한 것 때문입니다. Sheol-생오는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Hades-음부(무덤)는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번역가의 필체로 죽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서 *Septuagint-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성서*에 Hades-음부(무덤)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면 75년이라는 세월을 그리스 정치아래 있다보니 그리스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산다는 믿음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점을 밝히는 자들이 단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 뿐이었으므로 어찌면 그들의 그시대의 사상에 그때당시에 가장 적합한 말이 "Hades-음부(무덤)"라는 말외에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왜냐하면 그리스어로는 "Sheol-생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콰우지간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결과는: 그리스말을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 산다고 변경되어 읽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 혼동된 것을 그리스도 때에 와서 분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첫 공중 사회 개념, 산상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sup>6</sup>

그리스도 때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매우 중요했던 것은, 첫 세기 교가 발달했을때,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두 종류의 구통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또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살아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더구나 그 *Septuagint-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번역 성서*를 읽는 자들은 대부분 이와같이 믿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보면 몸이 죽은후 영혼이 살고 있다는 믿음이 현재 정통과 그리스도 예 들어왔다는 것을 볼수있는 것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흥미있게도, 오늘날 영어로나 한글로도 그리스도 250년전에 있었던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Sheol-생오"와 동등한 말이 없었던것과 같이 영어나 한글로도 이말과 동등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번역에 "Sheol-생오"를 어떤때는 "hell-지옥"이라고 번역 된 것을, 많은 Protestants-프로테스탄트; (신교도인들)이 읽었으며, 또한 많은 천주교인들이 읽는 Douay-Rheima-도우에이-레헤마 라는 성경에도 "Sheol-생오"를 "hell-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cp. 신명기 32:22; 욥 26:6; 시편 9:17; 잠언 5:5, 9:18, 15:11; 이사야 28:15).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Sheol-생오에서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이 말이 성경에: "Hell-지옥"은 무조건 교에서 받은 교육을 "확증해"서 죽은 악인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으로 알게 됩니다 ("Hell-지옥"에 대하여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TruthOrTradition.com/hell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유감스런 사실인 것은 영어 번역이나 한글번역에 "Sheol-생오"를 "Hell-지옥"이라고 번역된 것을 읽는 것이 *Septuagint-고전 그리스어 번역성서*를 읽는 것 보다 더욱더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Septuagint-고전그리스어번역 성서*는 "Sheol-생오"를 번역할 때 항상 "Hades-무덤"이라고 번역했으므로, 누가 그 *Septuagint-고전 그리스어 번역 성서*를 읽을 때 이 두말이 서로 반박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게 되므로 질문이 생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해서, 예를 들어, 킹제임스 번역을 놓고 보면, 어떤때는 "Sheol-생오"를 "hell-지옥"으로 번역했고, 어떤때는 "grave-무덤"이라고 했으며, 또한 어떤때는 상황에 따라서 "pit-구덩이"라고 번역되어 있음으로, 영어 성서와 한글 성서를 읽는 분들은 어떠한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살아있지 않다 하는 결과까지도 전어 모르게 됩니다.

다행이도, 요즈음 새로 나온 ESV.-English stander version 성서에는 이 점에 대하여, 영어로는 도무지 *Sheol*-새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Sheol*-새오를 그대로 두었음으로 영어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을 보면 이것이 무슨뜻인가 하고 찾아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Sheol*-새오에 가서 살아 있다고 믿는 자들은 물론 여전히 혼동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 뜻을 알려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 사용한 이 단어를 모조리 찾아서 공부한 사람들은 *Sheol*-새오라는 말이 죽음의 권세, 곧 장소, 영혼까지 함하여, 우리가 죽으면 모두다 그리로 가서 죽은 상태에 있는 곳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죽음에는 의식이 없지만, 우리주 예수님은 자기의 지체가 누구라는 것을 다 기억하심으로, 언젠가는 그들을 *Sheol*-새오에서 일으켜 내어, 죽은상태에서 나와, 다시 살려서, 그 생활은 더욱더 활기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수없이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By John W. Schoenheit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